



수지 꿈학교

초중등대안학교

2019_1학기_VOL.3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과 소통하며 가꾸는

자율적 배움과 생활이 있는

2019년 학기를 마치며...



수 _ 수지꿈학교는
지 _ 지금도
꿈 _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학 _ 학생 학부모
교 _ 교사가 모인 공동체

십년 동안의 시간속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침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침속에서 수지꿈학교는
발전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기동
마을까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더 나아가
수지 지역의 공동체로 자리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꿈만이 아닌
학부모,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한
아이들의 꿈일 것입니다.

2019. 07. 03
대표교사 조여경



수 _ 수지꿈학교~
지 _ 지금이에요
꿈 _ 꿈은 이루는 것이죠
학 _ 학생들 뿐 만아니라
교 _ 교사, 부모, 아이들의 꿈을요

얼떨결에 일년의 반이 흘렀습니다.
푸르디 푸른 나날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처럼요.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 그리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함께 만들어가길 바래요.

2019. 07. 05
학부모 대표 진달래

CONTENTS

[찾이슈 _ 영구터전]

수지꿈 영구터전은 현재 진행 중 _002
영구터전 위원장 '자전거'에게 묻다 _004

[찾이슈 _ 2019 교육모임]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감하는 수지꿈학교를 꿈꾸며 _006
멍게가 말하는 퍼셀리테이션과 수지꿈학교 _010

[아이들 엿보기]

사진으로 보는 아이들의 한 학기 삶이 _012
우리반이 제일 잘나가! 선생님이 소개하는 우리반 _016
반달과 함께하는 더 놀의 1학기 _025

[그들이 알고싶다]

중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인생 지나를 만나다 _026
2019년 새로운 가족을 소개한다 _028
릴레이 인터뷰 그 첫번째 주자 서기일꾼 배짱이 _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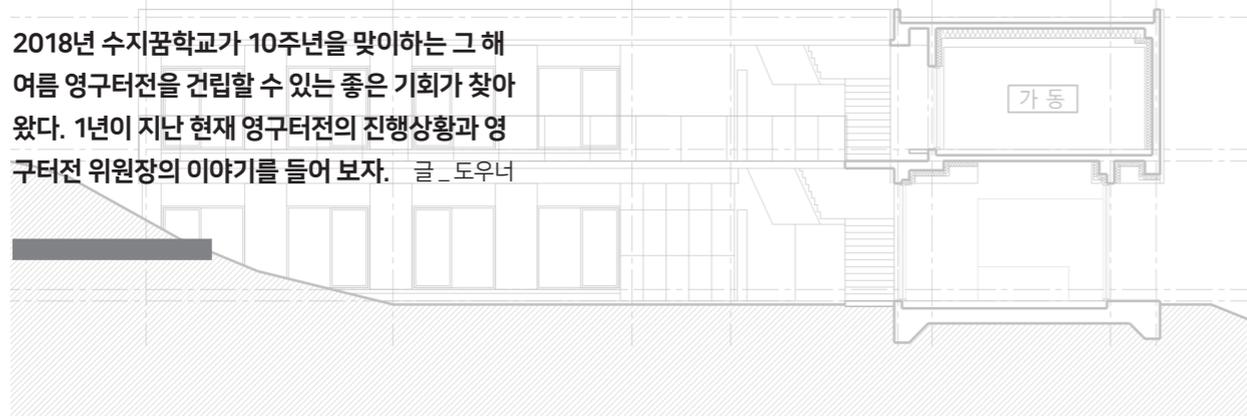
[부모와 함께 꿈꾸는 수지꿈학교]

느긋으로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_034
친환경 먹거리를 위한 엄마들의 된장담그기 _036
부모들의 대청소, 시설관리 _037
신편입 부모교육 그 마지막 날 _038
소모임 _소풍, 민들레, 아빠모임, 책나누기 _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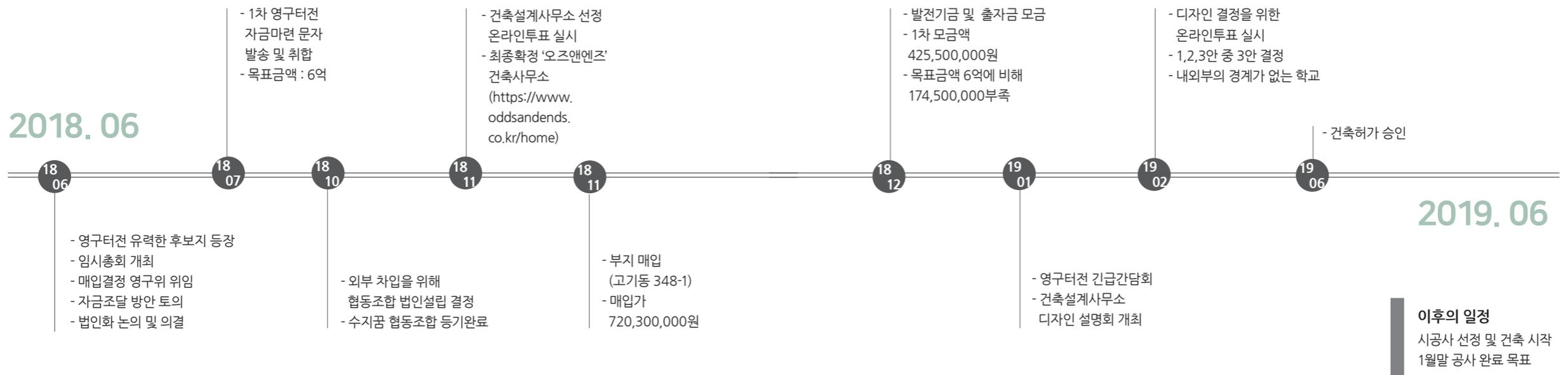
2학기 일정 _044
편집후기 _045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은 수지꿈 영구터전은 현재 진행중

2018년 수지꿈학교가 1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 여름 영구터전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1년이 지난 현재 영구터전의 진행상황과 영구터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글_도우너



내외부의
경계가 없는 학교



영구터전위원장 '자전거'에게 묻다



영구터전위원회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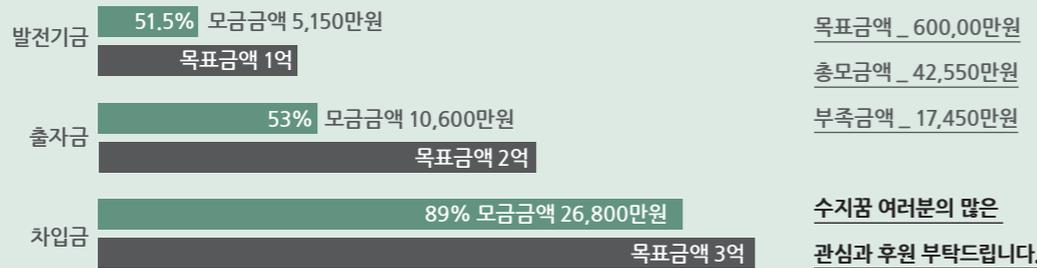
2016년 아빠 모임에서 학비의 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전에도 학부모들이 영구터전 마련을 위해서 몇 곳의 부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들었

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이참에 아빠 모임을 중심으로 기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영구터전 모임을 구체적으로 진행해보자 출발 하였다.

이번에 영구터전 계약, 매입, 대출 그리고 허가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다. 그 중 현

영구터전 부지 계약시가 가장 떠 오른다. 현 영구터전 계약 당시 몇몇의 중간 업자들이 끼어 있어서 원래 알고 있던 장소가 다르고 가격이 올라서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몇 달후 우연히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로 편지 및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매도인과 과 직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영구터전 자금현황



영구터전의 건축물은 우리 모두의 현실을 반영한 집합체라 말하고 싶다.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자금이 맞는, 현실에 맞는, 몇 명의 사람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만들어질 영구터전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치가 무엇일까

서울대 김광현 교수가 말한 내용으로 의미와 가치를 말하고자 한다. "좋은 건축이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을 바꿨으면 한다. 좋은 건축을 묻지 말고, 질문을 좁혀서 좋은 학교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으면 한다. 그러면 좋은 건축이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곳이 학교이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합치면 12년이다. 평균 나이 84세로 계산하면 인생의 1/7을 학교에서 보내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의 '감성'을 고려하면 그 시간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학교처럼 늘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지는 건물도 없다. 모두 '판박이'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다."

"교실만 늘어놓는 게 학교 건축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렇게 중요한 공간을 지금처럼 내버려 두고 추상적으로 좋은 건축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학교 건축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뒤따를 때 건축은 비로소 달라질 것이다."

학교건축은 왜 바뀌지 않나?

"우리가 공간을 통해 삶을 보고 이해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공간이라는 게 '내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공간은 나와 관계없는 것, 남의 것인 줄 안다. 공간이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집 창문에 예쁜 블라인드나 커튼만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창으로 밖에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학교 교육에서 공간에

대해 배웠으면 한다. 공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법을."

[출처: 중앙일보] 건축학 교수의 마지막 강의 "좋은 건축이 뭐냐 묻기 전에..."

현 시점에서 수지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구터전 위원장으로 써 자유롭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구터전의 건축물은 우리 모두의 현실을 반영한 집합체라 말하고 싶다.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자금이 맞는, 현실에 맞는, 몇 명의 사람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관심가지 않는 건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누구도 관심을 가지는 건축물로 우리 모습이 투영된 건물이 나오는 것을 인지해서 좀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영구터전위원회에 다양한 의견 제시 바란다.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감하는 수지꿈학교를 꿈꾸며



시작은 그랬다. 2019년 교육일
꾼이 되었던 것이다. 무슨 교육
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나
는 우리 내부의 이야기를 꺼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
러 도움을 받아 드디어 퍼실리테
이션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모아
보았다. 글 _ 맨발

2018년의 교육모임에 대한 이야
기를 들었다. 이야기 중 유독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
다. 콘텐츠 발굴과 외부강사 초빙에
집중한 나머지 학교 내부의 교육철
학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없
었다는 것, 또 교사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상의 이슈를 점검하고 교
육모임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학년을 분리
하여 교육모임을 시도하지 못 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했다.

나는 올해의 교육모임 계획을 세우
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할지 중
심을 잡을 수가 없었고 또 영구터전
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시점에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훌륭한 외부

강사의 강의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공명했다. 수지꿈학교가 10주
년이 되고 영구터전을 앞두는 이 시
점이 어느 때보다 우리학교에 대해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자리가 더욱
많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렇게
2019년 교육모임은 우리의 이야기
로 채우기로 했다. 고민이 많던 중에
까미에게서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었다. 멩게에서
모임을 이끌어 주시면 좋을 듯 하다
는 의견이 모여져 모시게 되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인가? 이렇게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감!하는 수
지꿈학교'를 꿈꾸며 올 한해 교육모
임을 시작했다.
기존과 다른 교육모임을 계획하다
보니 누군가에게 흥미를, 누군가에



겐 당황과 의아함을 주었다. 틀을 깨
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냥
파격적으로만 끝나지 않겠다는 다
짐과 함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그
러나 모든 답은 '우리 안에 있다'라
는 믿음이 있었고 분명 모두에게 의
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은 구성원 모두가 모여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
고 의미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었다.
4월이 아닌 3월에 전체강좌 교육모
임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모임이 어
떤 방향과 방법으로 진행될지를 알
리고 구성원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였다. 실제 교
육모임에 앞서 교육소위들이 몇 차
레 모여 주제를 의논하였고 '모의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 수정, 보
강하면서 기획을 하였다.
3월 교육모임에는 '퍼실리테이션'을
경험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주제
가 무겁지 않으면서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운동화'라는 주제를
결정했던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
으며 '퍼실리테이션'을 가볍게 익히
고 다음 모임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며
참여를 유도하려 했다.
4월 교육모임에서는 좀 더 심도 있
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이 또한
교육소위 모임이 선행되었으며 '모
의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더 다듬어
졌다. 참여율은 3월보다 저조 했으
나 참여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모습을 보여줬다. 학교에 대한 이
야기를 해서 일 수도 있으나 '퍼실리

테이션'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진 듯
함은 나만 느낀 걸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답을
얻거나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다. 서
로의 생각을 나누며 함께 생각을 모
으는 과정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
다는 자체에 마음이 뜨거워졌길 바
란다. 그 후에는 뻑뻑한 학교 일정
상 교육모임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
나 다시 모일 때에도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더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
란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의 무게가 같은 '대화의
안전 지대'에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
하기를~! ☺

[1차 교육모임 우리의 목소리]

“ 대화할때 지켜야 할것 ”

- 같은말 반복하지 않기
- 미리 판단하지 않기
- 공감해 주기
- 각자의 차이를 인정
- 말 끊지 않기
- 끄덕여 주기
- 끝까지 듣기
- 편견 선입견 없이

“ 2019년 우리가 바라는 운동회 ”

- 멍때리기 대회 8km 마라톤
- 경쟁없는 운동회 1박2일 운동회
- 알뜰장터 바자회 런닝맨 운동회
- 학생중심 운동회 외부개방 동네축제
- 1박2일 운동회 노래자랑 춤자랑
- 반려 동물 식물 과 함께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운동회
- 준비부터 끝까지 모두같이
- 음식물 쓰레기 없는 운동회

[2차 교육모임 우리의 목소리]

“ 학교에서 지키고 싶은 것 ”

- 교사들의 열정, 좋은 사람들 참여하는 공동체
-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회의, 다양한 목소리,
- 자유로움 편안한 분위기 친환경 급식
- 즐겁게 지내는 아이들 모습 자연에서 노는 아이들
- 배려,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스스로 하는 힘
- 걷기 여행 기부문화/장학금, 소풍
- 교육간담회 교육모임 수지꿈 정보통

- 유연함(교사, 학부모, 학생간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 원활한 관계(ex. 부모 소모임 동아리, 반모임, 익명게시판 활성화)
- 뒷풀이 활성화(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노는 공동체)
- 교과 과정의 큰 틀 만들기, 교육철학(행복한 자유인) 구체화
- 교육 '소통' 위원회 (교사, 부모, 학생간)
- 먹거리 (깨끗한 주방에서 친환경 재료로 위생적으로 조리한 먹거리)
- 학교 운영에 자발적 참여 꿈학교 만의 멋진 터전 선택형 수업, 개인 프로젝트
- 개인의 재능/열정/진로 방향 그리는 프로그램 스마트폰, 핸드폰 규칙 정하기

“ 학교에 바라고 싶은 것 ”

고기동의 명mc 명게가 말하는 퍼실리테이션과 수지꿈학교

글 _ 명게



퍼실리테이션이란

작년 퍼실리테이션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만 소통에 대한 기술을 배운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퍼실리테이션 강좌에 참여했다.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퍼실리테이션의 매력과 의미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중지성: 똑똑한 소수보다 평범한 다수가 더 위대하다'라는 퍼실리테이션의 철학이 가장 크게 와 닿았다. 건강한 조직과 공동체는 소수의 리더에 의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말의 무게와 책임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구성원 각자가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자

발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상호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이라 생각한다.

수지꿈학교의 느낌

사실 잘은 모른다. 그러나 초등과정 대안학교로 시작해 10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제법 안정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대안학교로 알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신입생을 더 이상 맞이하지 못하거나, 학교운영 지속성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요즘, 수지꿈학교가 꾸준히 성장해 나간 것은 큰 자부심이 되리라 생각한다.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그 비결을 알

수 없지만,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이어 나가기를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두 번의 진행 중 기억에 남는 순간

무엇보다 교육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그룹 이공이가 되어주고, 함께 준비해 준 교육소위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퍼실리테이션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몸으로 더 체험한 교육소위가 앞으로 수지꿈학교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앞장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퍼실리테이션으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점

목소리가 큰 몇 사람에게 의해 회의와 논의가 점령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사, 부모, 학생 모두의 의견과 말의 무게는 지위, 나이를 떠나 동등하고 소중하다. 대안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방법과 과정 중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신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명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함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멋진 합주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상상하면 좋겠다.

퍼실리테이션으로 소통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상반기 두 번의 교육모임 안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우리의 대화와 아이디어가 좀더 구체적이지 못했던 부분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이유와 원인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하반기에 어떤 주제로 교육모임이 기획되더라도 대화 안전지대가 좀 더 잘 구축되어 '아무말 대잔치'가 열리면 좋겠다. 뻔한 아이디어보다는 미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서로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어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구 쏟아지기를 바란다. 문제가 없는 조직과 집

퍼실리테이션의 진행과 글을 써주신 명게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은 없다. 그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가느냐가 그 조직과 집단의 미래를 좌우한다. 소통과 혁신은 기업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수지꿈학교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 요구되는 생존전략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2019년 1학기 우리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웃음가득한 아이들의 한 학기 살이



- 1_ 신입생가족
- 2_ 입학식 오프닝은 신나는 풍물놀이
- 3_ 수지꿈 꽃가마의 전통을 이어 받아 꽃 퀵보드입장
- 4_ 우리가 바로 2019년 학생일꾼
- 5_ 학기초 일꾼선출은 신중하게
- 6_ 일꾼 후보 탐색은 꼼꼼하게



- 1_ 아나바다 나눔장터
- 2_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누리는 선배들의 손가마
- 3_ 4.19마라톤 대회
- 4_ 마을행사 100주년 머내만세운동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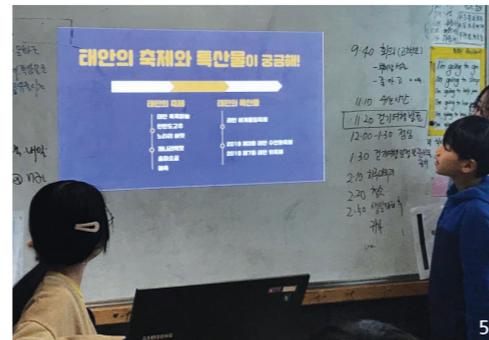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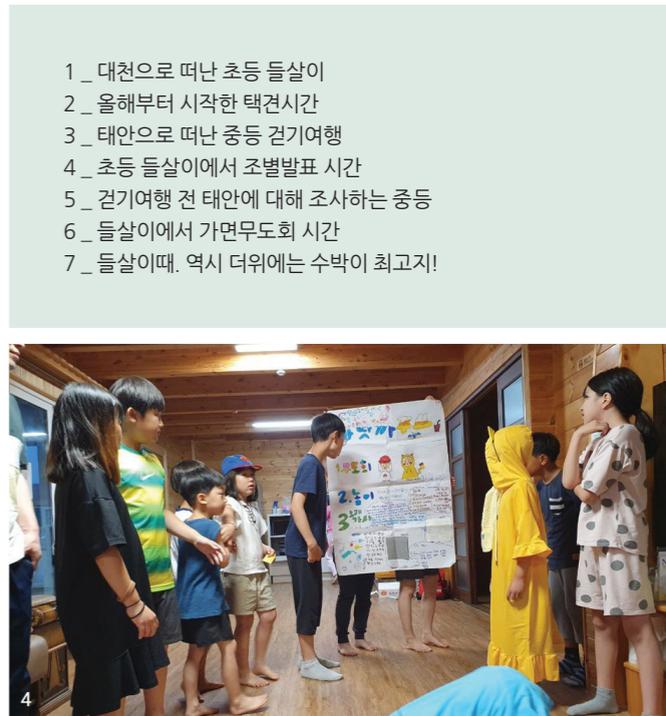


- 5_ 머내만세운동에 참가한 선생님들과 중등학생들
- 6_ 수지꿈에 입학하고 단 한번 성대하게 열리는 생일파티
- 7_ 머내만세운동 길잡이가 된 수지꿈 학교 풍물패 소풍
- 8_ 4.19 마라톤대회에서 열심히 달리는 1학년





- 1 _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표현해보는 시간
- 2 _ 인권에 대한 것을 조사한 아이들
- 3 _ 단오제 때 만든 부채
- 4 _ 학교살이 조별소개지 꾸미기
- 5 _ 학교살이는 침낭과 함께
- 6 _ 학교살이 조별발표를 위해 조원들이 한자리에
- 7 _ 단오제 씨름 한마당
- 8 _ 학교살이의 하이라이트 조별 장기자랑



- 1 _ 대전으로 떠난 초등 들살이
- 2 _ 올해부터 시작한 택견시간
- 3 _ 태안으로 떠난 중등 걷기여행
- 4 _ 초등 들살이에서 조별발표 시간
- 5 _ 걷기여행 전 태안에 대해 조사하는 중등
- 6 _ 들살이에서 가면무도회 시간
- 7 _ 들살이때, 역시 더위에는 수박이 최고지!

내눈에 콩깍지! 누가 뭐래도 우리반이 최고 우리반이 제일 잘나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일 년 동안 불리워질 반이름을 정한다.
2019년에는 어떤반들이 생겼을까? 우리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정리 _ 소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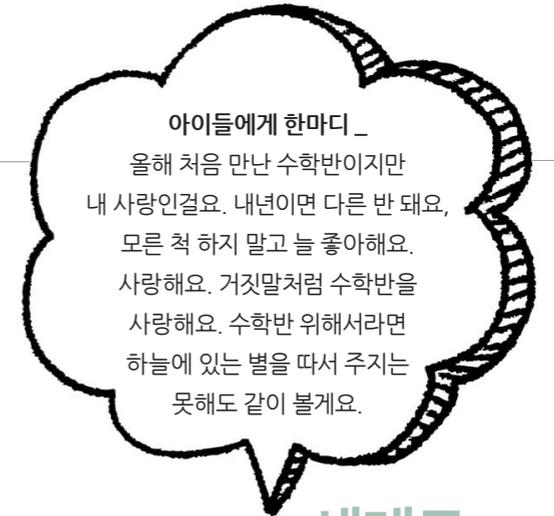
[수학반 _ 1학년]



반이름 _ 교실 문을 가르며 뛰어다니는 1학년은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따라 날아가고 싶어~” 했어요. “파란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하늘반’이라고 반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학년 아이들은 자신들이 수학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물입할 수 있는 인재들이라고 자신합니다. 아직은 수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수학을 잘 한다는 자신감을 인정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수학반’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수학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공부 끝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수학만을 더 사랑할거야~”



우리반 비밀은 _ “어어머나 어머니 이리저 마세요~” 수학반의 일은 비밀입니다. “안돼요. 왜이래요. 묻지 마세요~” 수학반의 비밀이 궁금하면 수학반에 놀러오세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_
올해 처음 만난 수학반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내년이면 다른 반 돼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늘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수학반을
사랑해요. 수학반 위해서라면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 주지는
못해도 같이 볼게요.

세계로

우리반은 _ 츤리닝이 잘 어울리는 수학반
밥을 많이 먹어도 뒤돌면 배고픈 수학반
세계로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수학반
“난 그런 수학반이 좋더라.”
머리에 땀범벅으로 윤기가 흐르는 수학반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장난치는 수학반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골라내고 먹는 수학반
웃을 때 앞니 빠진 게 보이는 수학반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수학반
“난 그런 수학반이 좋더라.”
수지꿈 여러분 세계로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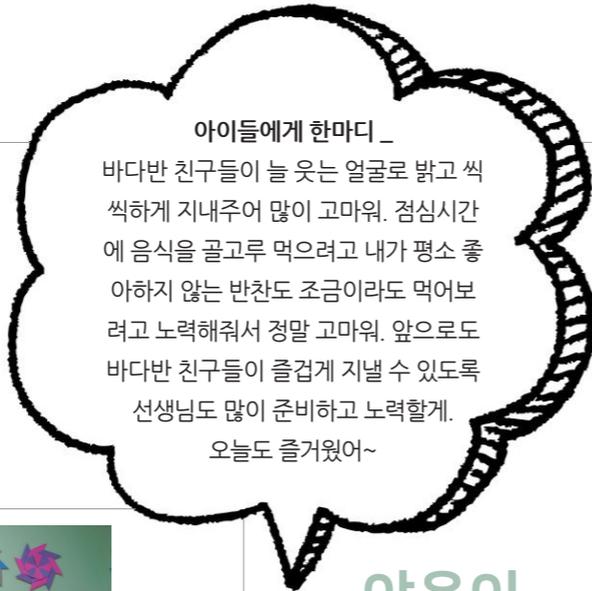
수학반은 '꿈이 있어요' _
그 꿈을 믿어요. 세계로가 지켜줄
게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게 세
계로가 지켜줄게요. 언젠가 그 벽
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때가
지 세계로가 지켜줄게요. 수학반이
웃을 그날까지 함께해요.

바다반 _ 2학년

반이름 _ “1학년 시절엔 ‘숲 속’에서 지냈으니 올해는 ‘바다’로 가자!”라는 의견을 모아 바다반이 되었어요. 바다반이 바다에서의 활동을 한번쯤은 꼭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초등 여름 들살이를 대천으로 가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반은 _ 바다반은 모든 활동에 열심이에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라는 말보다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라며 궁금해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해요. 물건 정리정돈, 공동의 물건 아껴 쓰기, 규칙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여주는 멋진 친구들이고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청소 구역을 깨끗이 하려는 책임감도 갖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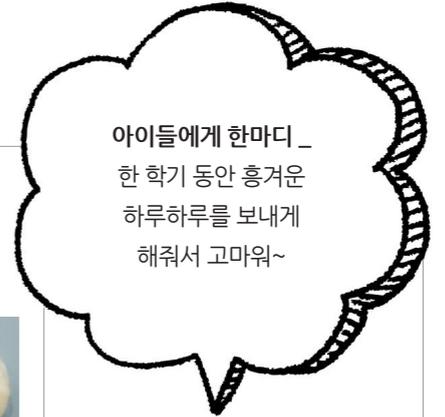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한마디 _
바다반 친구들이 늘 웃는 얼굴로 밝고 씩씩하게 지내주어 많이 고마워. 점심시간에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반찬도 조금이라도 먹어보려고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바다반 친구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도 많이 준비하고 노력할게. 오늘도 즐거웠어~

야옹이



극한직업반 _ 살림반

반이름 _ 아이들은 제각기 최신 유행하는 유행어를 가지고 반 이름을 만들어보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스카이 캐슬반’이 대세였다. 하지만 경쟁 위주의 공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안학교에서 스카이 캐슬반이 아니!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 영화 이름을 댔고, 그러자 누군가가 “지금까지 이런 반은 없었다!”며 ‘극한직업반’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옷살림 활동이 극한직업인 건가?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이 극한직업인 건가? 아니면 선생님을 보는 아이들이 극한직업인 건가? 하는 오해들이 난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반은 없었다!”는 포부와 함께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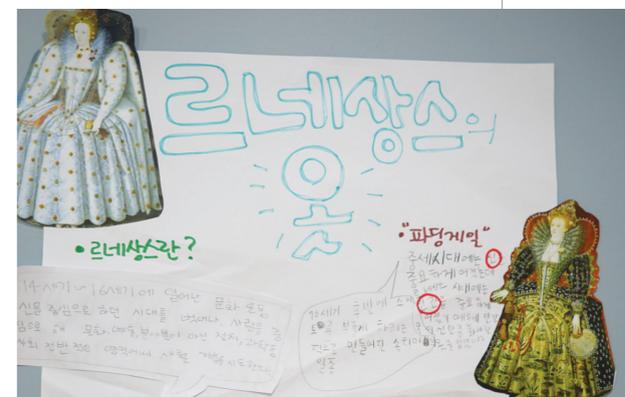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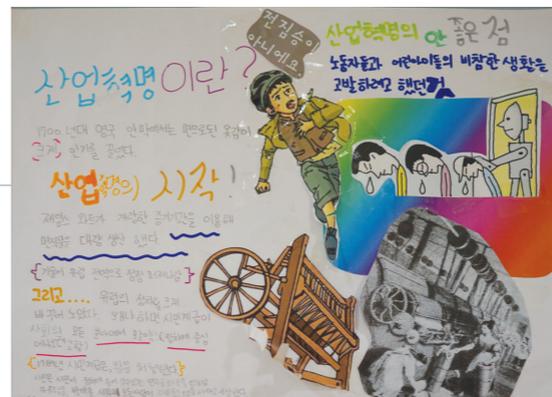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한마디 _
한 학기 동안 흥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

개굴



우리반은 _ 극한직업반의 자량은 한 마디로 ‘흥’이다. 청소 시간에 한 번 우리 교실에 들어와 보시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흥에 겨워 춤사위를 펼치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다. 쉬는 시간에도, 직조를 하면서도, 삼삼오오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있는 아이들, 한 명이 부르기 시작하면 어느새 떼창을 부르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흥이 넘치는 아이들이 우리 반의 자랑거리다~



[농부반 _살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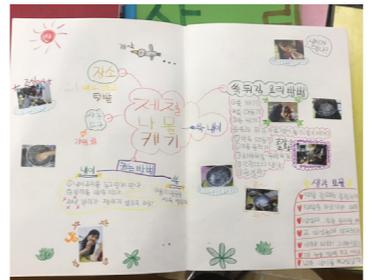
반 이름 _ '농부반'입니다. 밥살림의 갈래로 농사와 관련된 수업이 주가 되었기에 아이들은 '꼬마농부'의 개념을 담아 '농부반'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반은 _ 복잡한 건 싫다, yes or no 5학년 준혁이.
 고요한 미소에 뼈 있는 한 마디 툭- 던지는 5학년 신원이.
 모르는 건 내게 물어봐^^ 걸어 다니는 틈새 사전 5학년 민세.
 책 볼 땐 번개 쳐도 모르고 웃을 땐 온 세상이 환한 5학년 현지.
 정리정돈 꼼꼼히 작은 선생님 5학년 하랑이.
 거북이의 미학을 실천하는 4학년 수연.
 삼라만상을 말에 담아 내는 4학년 윤.
 천연기념물 개구쟁이 4학년 정우.
 재미난 아이디어 बैं크 4학년 제형이.
 독특한 유머를 즐기는 쟁틀맨 3학년 종원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생겼다 여기는 나르시스 3학년 도현이.
 요로코롬 자기 멋을 가진 열 한 명의 아이들이 농부반의 자랑입니다.~



농	사	달	력
음력	잡기	양력	특징
정월	우수	2.4	봄의 시작
이월	경칩	3.5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삼월	춘분	3.20	한양이 되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짐
사월	청명	4.4	봄이 깊어짐
오월	곡우	4.20	농사짓는 꼬마농부
여름	입하	5.5	여름의 시작
음력	소만	5.21	한해의 농사 시작
오월	망종	6.5	한해의 농사 마무리
음력	승하	6.21	한해의 농사 마무리
대서	소서	7.7	한해의 농사 마무리
	추석	7.23	한해의 농사 마무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_
 애들아~ 너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힘들게 만들어낸 살림공책과 글쓰기 공책에서 너희들의 생각보물을 발견할 때 마다 참 기쁘고 행복했다. 농부반 활동을 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원석 같은 표현으로 담아내는 너희들, 정말 멋진 뽀뽀들이야~ 힘들게 한 일에 보람을 느꼈으면 좋으련만! 그건 빙그레 생각이고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렴.

빙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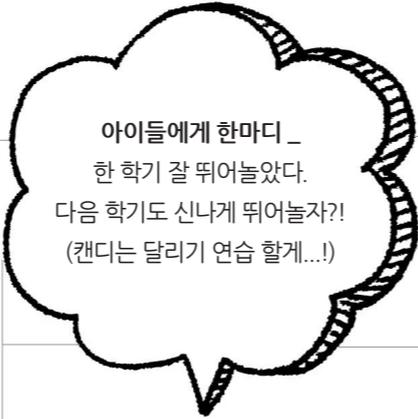
에피소드 _ 반 이름 지을 때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아이들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반 이름을 밥살림 특색에 맞춰 짓는 일입니다. '밥살림'과 연계된 이름 후보로 농바요반(바른농사 바른요리), 동반(거름의 중요성), 개새끼반(중의적 표현이라 엄청난 인기가 있었음), 농부반(농사짓는 꼬마농부)이 나왔습니다. 그 중 개새끼반은 반 주제와 동떨어진 이름이었으나 아이들의 마음 언저리에 욕이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공식적으로 욕을 할 수 있다는 호기 어린 재미가 발동하여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후보 중 개새끼반과 농부반으로 압축되어 논의 되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상황극을 연출하였습

니다. 개새끼반으로 결정될 경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저는 개새끼반 담임 빙그레입니다." 혹은 "저는 개새끼반의 아무개 엄마입니다." 또는 나들이를 나갔는데 반 친구들 모이라고 할 때 빙그레가 "개새끼 반~ 모여라~"(이때 반 아이들 모두 뒤집어지게 웃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개새끼반이라는 이름은 재미있지만 엄마들이 곤란할 것 같고 다른 반 친구들이 우리반 이름을 욕처럼 부를 것 같다는 의견이 모여져 지금의 '농부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때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좋아합니다. 개새끼반으로 결정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가요? 두고 두고 상상해도 재미있습니다.

[사탕반 _ 살림반]

캔디

반 이름 _ 우리반 이름은 '사탕반'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캔디이다 보니 박하사탕, 홍삼캔디 등 사탕과 관련된 반 이름 후보가 많이 나왔었죠. 그중에서도 'OK사탕반'이 최종 선택 되었어요. 우리반에서는 모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좋다는 의미의 'OK'가 붙은 거죠. 하지만 반 이름이 너무 길었을 까요? 학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OK'를 뺀 '사탕반'이라고 불렀어요. 반아이들과 회의를 통해 '사탕반'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_
한 학기 잘 뛰어놀았다.
다음 학기도 신나게 뛰어놀자!
(캔디는 달리기 연습 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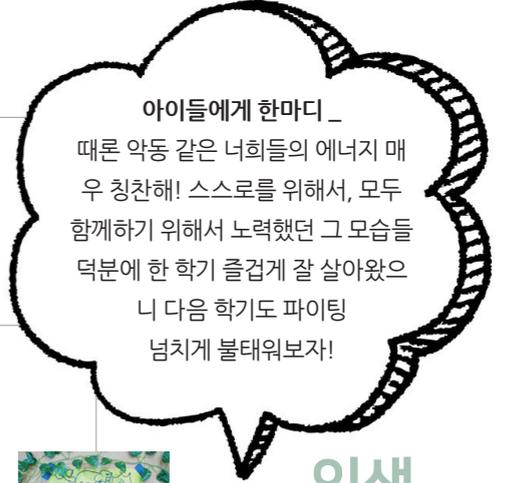
우리반은 _ 6명이 웃음이 넘쳐요~ 눈만 마주쳐도, 손만 스쳐도, 말만 해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하하호호 박장대소하며 웃어요. 아이들의 웃음은 바이러스가 되어 캔디에게도 전염되었죠. 아이들과 눈만 마주쳐도 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사탕반'은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하는 친구, 한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 등 다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에피소드 _ 살림여행에서 뜻밖의 브로맨스를 보았어요. 평소 티격태격하며 놀던 친구들이 손을 꼭 잡고 걸었죠. 더운 날씨에 손을 꼭 잡고 걷는 친구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남자친구들의 우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슬픈 일이 있었어요. 함께 생활하던 친구가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었어요. 친구와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함께 찍은 사진에 편지를 쓰는 등 '수지꿈학교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동물의 왕국 _ 6학년]

인생



아이들에게 한마디 _
때론 약동 같은 너희들의 에너지 매우 칭찬해! 스스로를 위해서, 모두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들 덕분에 한 학기 즐겁게 잘 살아왔으니 다음 학기도 파이팅 넘치게 불태워보자!

반 이름 _ 반 이름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새 학기 첫 날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각자 동물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정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고 딱! 깔끔하게 정했습니다.



우리반은 _ 6명이지만 12명 부럽지 않은 에너지와 단합으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에피소드 _ 프로젝트 주제로 화산에 대해서 활동하며 큰 통에 화산의 지형 모형과 화산 폭발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화산 지형 모형은 통의 뚜껑을 달아 교실 뒤편에 지나다니며 볼 수 있게 배치해두었는데

화산의 마그마를 표현한 케첩이 날이 더워지며 심각한 냄새를 풍겨 힘든 나날을 보냈던 웃지 못 할 일화가 있었습니다. 화산 모형이 든 통을 정리하려고 뚜껑을 여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네요.

[십대중반 - 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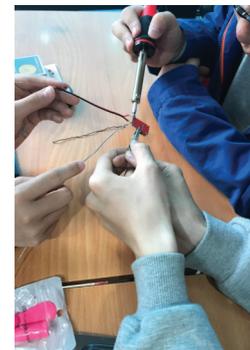
반 이름 _ 나이를 구분할 때 초반, 중반, 후반의 기준을 아시나요? 열넷, 열다섯, 열여섯과 같이 받침에 시옷이 들어가면 중반이고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같이 비읍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후반이라고 합니다. 열넷부터 열여섯까지 십대중반의 학생들이 함께 있다 해서 십대중반이 되었습니다.

안쓰는 향수를 재활용해서 틱형 고체향수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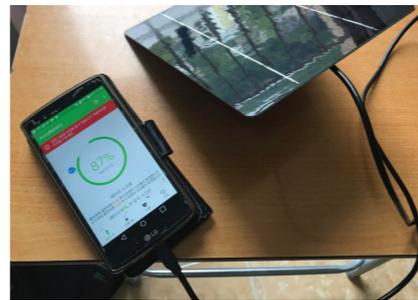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한마디 _ 너희가 모두 졸업하고 십대후반이 되어도~ 이십대 중반이 되어도 우리의 '십대중반' 시절을 오래오래 추억했으면 좋겠다!

지나



우리반은 _ 자랑할 것은 너무 많지만 뻘한 대답을 피해서 하나만 꼽자면 '기복'입니다.(기복: 세력이나 기세 따위가 성하였다 쇠하였다 함.) 맑은 날의 바다처럼 한동안 고요~하고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치는 분위기랄까요? 서핑은 자고로 변화무쌍한 파도 위에서 해야 재미가 있고 실력도 많이 늘죠. 그 기복의 파도를 잘 타면 재미나게 즐길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



태양광발전 스마트폰 충전기 만들기 과정과 완성 사진



에피소드 _ 반 이름에 대해 이야기 해서인지 반 이름 관련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은 우리 반의 공동체성을 높이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자는 거창한 취지도 있지만 보통 자신의 창의력과 유머 감각을 마음껏 표출하는 시간으로 장식됩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반 이름 후보를 던

지며 웃고 떠들며 처음의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를 녹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를 후보에 올려놓는데, 그 후보 중 하나가 '왕밤왕밤왕밤 반'이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워서 우리를 아예 못 부르게 하자는 뒷받침 의견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저만 혼자 초조했습니다. 후보 이름들

을 읽는데 단 한 번도 발음을 정확히 못했거든요. "후보 2번... 왕반 왕반왕밤밤...?" 학생들은 어찌나 발음을 잘 하던지.. 다행인 건, 본인들끼리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 절충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십대중반'이 되었답니다. 이런 과정도 어느정도 '십대중반' 답죠?



'학교에서 더 놀자' 방과 후 '더놀'이 2년째를 맞이했다.

글 _ 반짝이

2017년에 방과 후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하반기에 방과 후를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각 구성원의 욕구와 의견이 다양했지만 우리 학교에 맞는 방향에 대해 뜻을 모았다. 기본 방향은 '프로그램 등 강제성이 없는 자유로운 접근', '안전에 유의',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즐겁게 놀자'이다. 방과 후라고 말하면 배움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도 좋으나 처음에는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서 더 놀며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도록 자유로운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첫 해 한 학기 동안은 부모 돌봄이 돌아가며 이끌어 주었고 그 후에는 '더놀'을 이끌어 주실 선생님을 모셨다. 학기별로 모임을 하며 간

식비 정도의 비용을 받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신나게 더놀다. 특별히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지만 어린이날이나 방학 때는 모든 아이들에게 오픈하여 작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동안 바비큐 파티, 계곡 물놀이, 눈썰매장, 볼링장과 실내놀이터, 레스피아 나들이 등 여러 행사를 했다. 앞으로 방과후 '더놀'의 형식은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다. '더놀'이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며 개인의 필요성을 벗어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하고 후 시간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수지꿈학교의 대들보! 중등을 맡고있는 인생, 지나를 만나다

초등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중등. 그래서 그런지 중등쌤들도 멀게만 느껴진다.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그녀들을 찾아갔다. 상큼, 발랄, 때론 진중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글 _ 올챙이, 느긋



인터뷰를 마치고

그냥 해 본 것과 내가 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하시는 모습에서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중심이 있기에 더 깊은 색으로 만들어 가실 중등이 기대 되었습니다. 중등의 자량이 곧 우리 아이들이었던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인터뷰 내내 전해져 누군가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인생 _ 지나쌤은요, 열정 가득하고 눈이 항상 초롱초롱해요. 처음에 강사로 오셨을 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정교사로 오시게 된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생활하면서 봤더니 세상 허당 이더라구요. 하지만 일처리는 정말 빠르고 엄청난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나요. 저에게는 편하면서 든든한 중등을 이끌어가는 분이예요.

지나 _ 인생쌤과는 나이가 동갑인데 같이 지내면서 이분이 동갑인가 싶은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예요. 제가 처음에 강사로 왔을 때, 처음 담임을 맡았을 때 인생 선생님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고쳐야 겠구나 그 안에서 공부 해야겠구나를 느끼게 해준 것도 인생쌤이예요.

대안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인생 _ 저는 대안학교를 다녔었고, 부모님은 공교육에 계셨었죠. TV에서 대안교육 단어만 봐도 심장이 쿵덕쿵덕했죠. 저에게는 대안학교라는 선택이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학교라는 선택지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부모님을 도와 3개월 내내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만 살아도 행복한데 왜 굳이 뭔가 확신도 없는 길에 꼬달리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대안학교에 확신을 갖게 되었죠.

우리 애들은 중심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생각에 중심이 서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인 것 같아요.

지나 _ 제가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각자 잘 하는 과목을 하나씩 정해서 멘토처럼 친구들에게 숙제 봐주기를 했었는데, 누구를 가르쳐 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업을 떠올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싶었죠. 또 제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교류가 없었는데 저는 이런 교류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대안교육을 알게 되었어요.

꿈과 열정과 희망을 갖고 오셨는데...실제로 지내보시니 어떠세요?

인생 _ 대안학교를 처음 접한 것이 아니었고 선생님이란 자리도 처음 있어 본 게 아니어서 아이들이랑 지내는 부분에서는 괜찮았어요. 저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별로 없긴 한데 이 정도면 진짜 행복한 학교지 싶을 때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부모님들이 좀 더 중심이 되어서 만든 학교이고 지금도 기본 운영 부분은 부모님들이 맡아 주고 계신데, 매해 바뀌는 일꾼들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중심을 잡고 어떤 진짜 주인과 같은 개념이 없는 부분이 아쉬워요.

지나 _ 올해는 어떤 교육의 목적과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고 목적을 쓰는 것에 갑자기 집중이 되니까 무엇을 할 때 그게 먼저 생각이 되는거예요. 교육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미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

큼 가져가는 거라 생각해요. 같은 교육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 학교인 건데 우리가 하나를 얻는 것으로 결론을 미리 내리고 교육과정을 짜야하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지식교육을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써 있을 뿐이지 모든게 프로젝트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각자 아이들에게 이걸 했는데 막상 좀 아닌 것 같으면 아이에게 맞게 좀 틀어서 진행하는데, 교육 목적을 쓰기에는 이걸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애는 이걸 안했을까요 하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쉽죠.

중등의 자량거리는?

지나 _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애들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대화할 때 느낄 수 있어요. 학교가 작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떠한 공부보다 중요한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깊게 깊게 가져가다 보니 아이들 몸에 배어서 어디를 가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생각에 중심이 서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인 것 같아요.

인생 _ 중등 아이들은 자기가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 존중을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이를 어릴 때 보던 이미지로 계속 생각하니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친구들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

2019년 수지꿈학교 새로운 가족을 소개한다

2019년 1학기. 수지꿈학교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선생님부터 신입가정까지 그들을 알아보자. 정리 _ 개구리, 호랭, 진달래

조리 및 위생관리 _ 루시아

수지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_ 음식하는 일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할 수 있었다. 수지꿈의 좋은점 3가지 _ 1. 선생님과 아이들과 좋은 관계 2. 아이들 밝고 긍정적이어서 좋다. 3. 서로가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솔직함이 좋다. 수지꿈에서 기대되는 점 _ 자기 계발에 대한 확고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개인의 꿈은 _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다양성을 알려주고 싶다. 하고 싶은 이야기 _ 부족함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



택견 _ 김동진

수지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_ 아이들에게 택견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 수지꿈의 좋은점 3가지 _ 1.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뛰어노는 친구들이 많다. 2. 밥이 맛있다. 3.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이쁘다. 수지꿈에서 기대되는 점 _ 개인적인 바람은 아이들이 택견 경기에 나와서 서로 응원하며 시합을 치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각보다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다. 개인의 꿈은 _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다. 공연이나 시합 일정이 많아 가족과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생각하게 된 꿈이다. 장래에는 주말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싶은 이야기 _ 다니면 다닐수록 즐거운 학교 같다.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된다. 잘 부탁드립니다. 🍷

통합교사 _ 시내

수지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_ '평소 무엇이 진정한 교육일까?'라는 질문을 늘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은 성적 향상을 위해 개인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학생들끼리의 입시 및 경쟁으로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수지꿈학교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수지꿈학교의 좋은 점 3가지 _ 1. 통합교사로서 이야기하자면 가장 좋은 점은 다른 학교 특수학급과 다르게 직접 안에서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

과의 관계나, 수업의 참여도 등은 관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지꿈학교에서는 통합학급 안에서 직접 통합교사가 상황을 알 수 있고, 학생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2.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 토론을 통해 수용되거나 반성을 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그리고 수지꿈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회복적 회의, 살림 등의 다양한 교과를 통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힘을 키워주는 중요한 원동



력이라고 생각한다.

3.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생활을 정말 많이 고민하신다는 것이다. 학교생활에서는 '나' 혼자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끼리의 갈등 관계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처럼 큰 사건이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수지꿈학교 선생님들께 놀랐던 점은 학생들끼리의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여러 회의와 고민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끼리의 관계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이야기를 통하여 한 명의 교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여러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서로 공유하며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지꿈에서 기대되는 점 _ 학생들의 내적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통합교사로서 비장애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한다.

개인의 꿈 _ 늘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그러나 학생들의 잘못은 엄격하게 꾸짖을 줄 아는 교사가 되고 싶다.

하고 싶은 이야기 _ 통합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승우



아빠 _ 탄뽕 엄마 _ 호랭
나 _ 한승우 동생 _ 한민재
- 낭만 꿈 자유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
- 믿는 만큼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터전
- 공동체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곳



임희주, 임희찬



극한직업반 _ 임희주
수학반 _ 임희찬
엄마 _ 소라게 아빠 _ 임상우
- 꼭 오고 싶었던 학교!
-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되는 곳



최지호



아빠 _ 신희등 엄마 _ 무지개
나 _ 최지호 동생 _ 최지민
-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학교.
-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학교



이건우

부 _ 우발 모 _ 나길
나 _ 이건우 동생 _ 이해나
- 행복, 즐거움, 평안



문서현

아빠 _ 셀파 엄마 _ 연어 나 _ 문서현
새로운 도전으로 누리는 자유와 행복!!
- 진짜 원하는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
- 부모의 바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곳!!



김하울



아빠 _ 도니 엄마 _ 아리
나 _ 김하울 동생 _ 김하랑
동생 _ 김하음
-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곳
-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 앞으로 우리 세 아이들이 성장할 터전
-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곳
-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 가면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곳
-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



문혜성



아빠 _ 마당 엄마 _ 구름
오빠 _ 문윤성 나 _ 문혜성(십대중반)
반려견 _ 쫄이
- 꿈으로 다가가는 무지개 다리

유나영



아빠 _ 조화 엄마 _ 행복
나 _ 유나영(십대중반)
동생 _ 유종연(동물의 왕국)
- 지혜를 가르치는 감사한 심터

김현민

아빠 _ 별 엄마 _ 일렁 나 _ 김현민 동생 _ 김운호
-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학교
-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로의 개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경쟁보다는 협동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학교
- 좋은 교육의 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학교
- 우리가 먼저 사회와 이웃과 학교에 마음을 열고 다가감을 통해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은 학교
- 부모도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교.



부모 릴레이 인터뷰 그 첫번째 주자 2019년 서기일꾼 베짱이

아빠로서 아이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본다. 고민 끝은 잘한 선택이고 끝까지 아이와 학교를 믿고 같이 가보자고 생각한다.

<p>닉네임은 왜? _ 집사람이 먼저 달빛이라는 닉네임을 지었는데 햇빛, 햇별 뭐 식상하게 생각하다 평소 놓고먹는 한량스타일을 추구하던 바 이습우화 개미와 베짱이의 베짱이처럼 한여름밤 달빛 아래서 놓고 먹는게 딱 이라는 생각에...</p>			<p>요즘 관심있게 하는 것은? _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서 1년정도 매일 아침 6시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야간형 인간이었는데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형 인간으로 변모 중이죠. 주말에도 가니 도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건 또 고백인거죠...</p>		<p>이곳에 와서 달라진게 있다면 _ 주말이 없는 삶? 공부하는 삶?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이, 교사, 학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분들을 보면서 그 열정과 노력에 감탄하고 자극 받기도 하며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주류? 희한한 사람? 여전히 주변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 대중적이지 않아 상대에 따라 때로는 진보적인 아빠로 때로는 아이의 미래는 하나도 관심이 없이 방치하는 아빠로 살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 확신과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민 끝은 잘한 선택이고 끝까지 아이와 학교를 믿고 같이 가보자고 생각한다합니다.</p>
	<p>우리아이는요? _ 농부반 3학년 이도현은 저를 닮아 낮을 많이 가리고 겁이 많은 아이입니다. 여전히 맞춤법도 틀리고 한국말도 서툴지만 그래도 나름 친구 형님들 동생들도 챙기고 굿은 일도 나서서 하는 의젓한 아이라는 귀뜸도 있긴 하죠. 아빠랑 노는 걸 좋아하는 순수한 아이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 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가끔 "아빠가 거절할게 뻐하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짜증을 내고 거절을 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깊은 반성을 하지만 일주일 못가네요...(질문은 아이소개인데 갑자기 제 고백을..)</p>		<p>하고싶은 이야기는? _ 전체 학부모분들의 1/3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라 특정한 누군가를 알고 싶은 만큼 관계가 넓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반대표도 했고 일꾼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회사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민폐가 되는 거 같아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네요. 성격 상 먼저 다가서는 건 잘 못하지만 오는 분은 안 막는 스타일이니 오다가다 말 좀 걸어주세요!</p>		
	<p>우리아이에게 학교란? _ 일상이 놀이! 무식이 죄냐! 무조건 가야하는 곳! 다른 곳은 다녀본 경험이 없다 보니 도현이의 경우는 '학교=놀이터'가 성립되는 듯 합니다. 저 역시 학교생활은 다치지 않게 잘 놀다 오라고만 하는데 이리다 주욱 놀까봐 살짝 걱정입니다.</p>			<p>릴레이 인터뷰 다음타자를 지정하면? 질문은? _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꼽자면 작년에 같은반이었던 <<우주>>에게 넘기고 싶네요. 음지에서 엄청 많은 도움주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양지로 나오시죠. - 대체 왜 그렇게 바쁘신거예요? 술자리에서 한번 뵙고 싶네요! - 지난 3년간 수지꿈학교 학부모로서 삶은 어떠셨나요? ☺</p>	

이 곳 수지꿈학교에 와서 나는 느긋으로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 _ 느긋

느긋으로 살아가다

원래도 부지런한 성격은 되지 못했지만 아이를 키운다,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하며 종종 거려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하진 않지만 조금하기만 했던 그때 그 시간들. 그 시간들 끝에 수지꿈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었고 이제는 느긋하게 살고 싶어 '느긋'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나를 '느그웃~'하고 느그웃하게 불러줍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하나의 꽃이 되었다고 했던가요. 나는 그렇게 불러주는 '느그으웃~' 덕분에 정말로 '느그으웃'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긋이 되었구나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학교 체육대회 날 '도우너' 가 그랬습니다. 상자 쌓기 게임에서 모두가 상자를 빠르게 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느긋은 정말 느그으웃하게 상자 하나를 들고 이리 올릴까 저리 올릴까 고민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우리 팀이 질까봐 때릴 뻔 했다는 말은 글이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고길동 집에 초대받았을 때 또 '도우너'가 그랬습니다. 아! 고길동과 도우너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식사 후 느긋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뒤 통수에 대고 도우너가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냐, 머리를 감고 있는 거냐." 나는 느긋하게 대답합니다. "목욕도 하고 갈라구요!"



좁은 길의 즐거움

아침에는 늘 지각 언저리에 걸쳐있는 삶입니다. 학교라는 곳에 다닌 이래 지금까지 대략 30년이 넘는 아침 시간은 늘 그렇습니다.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부지런히 속도를 내어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만큼은 '안 느긋한 느긋'입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는 차 두 대가 아슬아슬하게 마주보고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길입니다. 서두르면 지각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나는 시간, 종종 내 차 앞에서 천천히 기어가는 지게차나 굴삭기를 만나면 애가 타기도 합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보면 이미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돌아가는 학부모들의 차가 마주 옵니다. 그분들은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보고 누가 지나가는지 헤아려 봅니다. 도로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다니요. 그렇게 반갑고 신기할 수 없습니다. 8차선 도로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 보는데 마주 오는 차에서 나를 알아 봐주고 반가워해주는 경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등갓길의 즐거움입니다. 철저한 익명의 세계에서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세상으로의 이동이지요. 그 안에서 나와 아이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앞만 보고 운전하던 저도 드디어 창문을 내리고 상대방 차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희열이란. 그리고 그날 초보운전 스티커도 힘껏 떼어버렸지요.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연대의 힘

앞의 이야기들을 꺼내어 놓은 건 결국 '함께 아이를 키움, 연대의 힘'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실 이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 전에는 연대하는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내 아이는 나 또는 나의 가족만이 오롯이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조금하고 종종 거를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학교에서 맺은 인연들은 나에게 넉넉한 품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 주었고 더불어 아이를 키워가는 연대의 공동체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들' 덕분에 나는 '느긋'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우너에게 그랬던 겁니다. (이제 보니 이글의 주인공은 도우너였습니다. 양해해주신 도우너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고길동은 서울로 나들이 간 어느 토요일 오후. 소머즈와 함께 아이들을 부르르 데리고 가서 밥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도우너는 기꺼이 맛있고 풍성한 밥 한 끼를 똑딱 차려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진상들!" 도우너는 우아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 더 심한 욕은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가족 같은 연대의 공동체입니다! ❄

수지꿈학교 아이들의 친환경 먹거리를 위한 엄마들의 된장담그기

된장, 간장을 사먹는 것으 로만 알던 엄마들. 우리아이들의 친한
경 먹거리를 위해 그녀들이 출동했다. 엄마들의 된장 담그기를 함
께 둘러 보자. 글_겨울비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이 하늘이 파랗던 이
큰 봄날, 난생 처음 된장을 담으려 '산아래'
네 집을 방문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집에
서 된장, 고추장을 한번도 담그지 않았고 된장,
고추장은 사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 큰집에서 보았던 메주
는 낯익은 듯, 불편한 냄새를 풍기는 '과연 이게 먹
는 건가' 싶은 이름만 익숙한 식재료였다. 실물 메
주를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른다. 근데 엄마가 되
니 별일을 다 해본다. 나를 위해서는 못해도 아이
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엄마는 역시 대단하다.
사실 된장, 간장은 메주만 있으면 어려울 것이 없
다. 누구든 된장, 간장 만들기를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을듯 하다. 그 비법은 두레생협 메주가 있기

에!! 생협메주는 수입공,
GMO공 아닌 국산공
메주라 마음이 놓인다.
간장을 다 담고 100여
일이 지나면 햇빛과 바
람을 맞으며 익어간 메
주를 된장과 간장으로
가르기를 한다. 메주를
담가두었던 소금물을 면
보에 걸러 끓여주면 간
장이 되고, 남은 메주를
으깨고 무르게 삶은 콩
을 섞어 힘차게 치대주
면 된장이 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약간의 수고로움이 우
리 아이들을 더 건강하
게 해 준다는 믿음으로
즐겁게 장을 담갔다. 전통장 담그기가 수지꿈학
교 1년 먹거리 계획의 첫 시작으로 매해 계속되기를
바란다. 또 엄마들이 담근 전통장, 친환경 급식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지꿈학교
아이들을 기대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다 우리의 대청소, 시설관리

뚱손도 금손으로 만든다는 수지꿈학교 시설관리에 부모들이 함께 한다.
구석구석 대청소부터 고장난 문고리까지 척척 고쳐내는 부모들의 이야
기를 들어 보자. 글_보리

2019년 2월. 길고
긴 겨울방학이 끝
날무렵 개학을 앞둔 하
얀 눈이 내리던 어느날
수지꿈학교 부모들이
장비를 한아름 챙겨 수
지꿈학교에 모여들기 시
작했다. 그들은 아이들
이 개학을 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대청소를 했
다. 아이들이 지내는 공
간은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이라 생각하
고 구성원이 함께 참여
해서 내집보다 깨끗하게
묵은 먼지를 닦아냈다.
이날은 신입교육이 끝나
고 이루어진 대청소라

원의 참여는 필수다. 2019년 또 한번의 대청소
는 여름방학이 끝날무렵인 8월 첫째주나 둘째
주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매월 부모들은 순번을 정해 학교 시설을 관
리한다. 1학기에는 수학반, 바다반, 사탕반, 극한
직업반이 방충망교체, 운동장그물보수, 주방청
소, 우수관청소를 해주었다. 2학기에는 농부반,
동물의왕국반, 십대중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
다. 그 외 운동장 수도교체, 블라인드 수리, 비품
구매, 싱크대 막힘 등 일상적인 학교관리에 시설
소위가 힘을 쓰고 있다. ☺

프리패스권을 가진 1학년 신입 학부모들도 함께
했다. 부모들의 대청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1
년에 두번 이루어진다. 대청소날 무엇보다 어려
운 점은 함께 모이는 시간 맞추기이다. 공동체 어
떤 행사보다 손이 필요한 청소인지라 많은 구성



내리사랑을 느낄수 있었던 신편입 부모교육 그 마지막 날

선배들의 내리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수지꿈학교 식구로서
신편입 부모들을 응원한다.



수지꿈학교에 들어오면 6번의 신편입 부모교육을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하여 6월29일 드디어 막을 내린 신편입 부모교육. 지난 교육을 되돌아 보고 교육 그 마지막 날 수지꿈학교를 찾아가보았다. 글_ 맨발



시베리아급 강렬한 추위와 함께 어색하고 떨리는 기억을 남긴 1월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6월 후덥지근한 열기의 마지막 모임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1,2차 신편입 교육에서는 수지꿈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3,4,5차 신편입 교육은 전학년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모임, 교육간담회로 대체되었고 새 식구를 오롯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공동체에 잘 녹아들도록 이끌어 주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모임은 수지꿈에서 첫 해를 맞이하는 가정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선물해 주고 싶었다. 마지막 모임에는 2학년 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근황 토크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어색함을 깨고 서로를 알아가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

다. 또 롤링 페이퍼에 반가운 마음을 담아 보았다. 그동안 부모 모임에 참여하지 못 했던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기고자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게임도 하였다.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전 구성원이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제공해 준 풍족한 먹거리를 함께 먹으며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모임이 2학년 가정과 아이들이 함께하여 더욱 특별했던 것 같고 신입 가정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내년에 맞이할 새 식구들에게도 2019년 1학년 가정이 기꺼이 마음을 더 내어 주리라 생각이 든다. 앞으로 수지꿈의 '내리 사랑' 전통으로 자리 매김하면 어떨까? 흐뭇한 상상을 해 본다. ☺

[소풍]

소풍_ 참된 삶의 바른마당 수지꿈교육공동체 풍물패는 2016년 11월에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지꿈학교의 소모임 형태로 탄생하였다. 대동굿, 마을굿을 지향하며 공동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로 악기를 매고 치는 선반위주로 연습이 진행되며 함께 즐기며 놀 수 있는 우리소리의 기본을 익히고 배운다.그동안 수지꿈 마무리잔치, 가족운동회, 지역 공동육아 단오제, 지역 공동육

아 개원잔치, 고기동 정월대보름 축제, 둘레길 걷기대회, 통일음악회, 머내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등 크고 작은 마을행사에 참여해서 신

명을 올렸다. 수지꿈 가족에게 소풍은 늘 활짝 열려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지꿈 식구들과 함께하길 기대한다. 글_쩍이



[민들레모임]



민들레 모임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 꿈학교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을 중심으로 매달 운영모임과

교육모임을 집을 방문하여 진행하였었다. 운영모임속에서 학교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하고 교육모임속에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책을 선정해서 읽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진 후 각자 준비한 반찬과 밥으로 식사를 하였다. 학교 규모가 커지면서 없어진 예전의 밥 한끼하며 이야기 나누던 모습이 사라짐에 안타까워 민들레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학년을 초월해서 주제를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정을 틔우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밥을 같이 먹는건 돈독함과 여유 등 많은 것을 가져온다 생각한다. 민들레 모임은 한달에 한번 민들레 책중에서 한 챕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진

솔하게 나누는 자리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공동체, 나를 돌아보는 자리, 아이를 키우며 겪는 시행착오 등등 다양한 주제들이 오간다. 1학기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2학기에도 더 좋은 모임이 되길 기대한다. 글_여백



[아빠모임]



아빠 모임은 엄마들 위주로 운영되는 수지꿈학교에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아빠들끼리 따로 시간을 내어 학교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으며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한다. 아빠

모임은 분위기를 풀어주는 알코올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진다. 술을 마시면서 좀더 편하게 학교와 공동체에 대해 편하게 질문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 된다. 저학년 부모로서는 고학년 아빠로서 느끼는 학교와 공동체, 아이의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고 또 저학년 부모로서 궁금한점 고민을 쉽게 나누고 조건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시간이 된다. 2019년 1학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산행을 다녀 오기도 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아빠모임의 활동을 구상중이다. 글_탄빵

[책나누기]

아이들이 입학하고 정신없이 한 두 달이 흘러갔을 즈음이었다. 서로의 집으로 마실을 오가며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풀어내는 일상이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우리도 소모임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라고 누군가가 제안했고 그렇게 책 모임은 시작되었다. 사실 어쩌면 책 모임이란 말이 무색한 것일 수도 있겠다. 책이 아닌, 그림, 영화, 음악... 함께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 괜찮다. 한 사람씩 추천하고 각자 보

고, 듣고, 읽고, 느낀 후에 만나 이야기 나누는 모임.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모임이었다. 첫 모임은 그림책이었다. 텍스트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림만으로 채워진 책. 혼자서 읽을 때는 그저 그림들을 눈으로 훑다가 잠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며 책장을 휘리릭 넘겼던 것 같다. 2주 후 모였을 때, 글자가 없이 그림만 있는 그 얇다란 책 한 권으로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각자의 다양한 질문과 생각이 만드는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이것이 책 모임의 힘인걸까. 이후로 우리는 두 권의 책과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세 번의 모임을 했다. 꿈학교에서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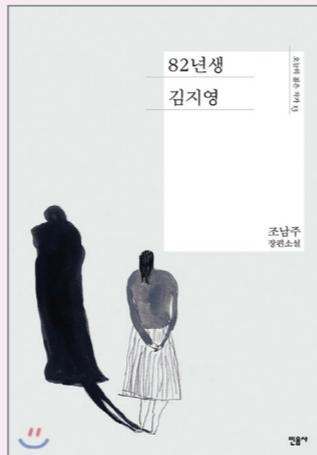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소통의 맛을 보긴 어렵다. 책 모임을 통해 어쩌면 나는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일련의 행위보다 그저 먹고 마시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운지도 모르겠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다음 모임을 기다리며 나는 지금도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을 읽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다. 한 번쯤은 책모임에 함께해보자고. 혹은 원한다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이다. 글_고길동

함께한 이야기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한국 여성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날카롭게 그려낸 화제의 책.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 서른네 살 김지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친정 엄마로 빙의해 속말을 뱉어 내고,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 빙의해

그를 식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김지영 씨의 정신 상담을 주선한다. 소설은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그녀의 인생을 재구성해 기록한 리포트 형식이다. 리포트에 기록된 김지영 씨의 기억은 ‘여성’이라는 젠더적 기준으로 선별된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엄마는 페미니스트》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에, 민음사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에의 첫 페미니즘 에세이. 실제로 친구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면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쓴 열다섯 통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페미니즘을 넘어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담은 책이다.



《케빈에 대하여》 린 램지 감독, 틸다 스윈튼 주연

‘모성’에 대한 도발적이고 사려깊은 질문을 던지는 영화. 자유로운 삶을 즐기던 여부가 에바에게 아들 케빈이 생기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에바의 삶은 케빈의 이유 모를 반항으로 점점 힘들어져만 간다. 에바는 가족 중 유독 자신에게만 마음을 열지 않는 케빈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지만 그럴수록 케빈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에바에게 고통을 준다. 세월이 흘러 청소년이 된 케빈은 에바가 평생 혼자 짊어져야 할 꿈쩍한 일을 저지른다.



《수영장》이지현, 이야기꽃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일러스트북. 글 없이 읽는 이가 상상으로 채워나가는 그림책이다. 주인공 소년은 누구이고, 물속에서 만난 소녀는 누구인지, 수면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소란은 무얼 뜻하는 건지, 깊은 물속 신기한 생물들은 어떤 존재인지 등 그림을 읽어가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마주한다.



《설이》

심윤경, 한겨레 출판사 부모의 욕망을 강요하는 ‘스카이 캐슬’식 교육열에 질문하는 성장소설. 새해 첫날 새벽 음식물 쓰레기 통에 버려진 갓난아기로 발견된 소녀 설이. 세 번의 입양과 파양을 겪으며 상처받고 영락해진 설이는 영원한 의문을 가슴에 안고 세상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날카롭게 관찰한다. 약자를 향한 교묘한 학대와 차별에 익숙한 부유층 아이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설이는 위탁모 이모의 높고 초라한 사랑과 대한민국 최상류층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 사이의 선명한 대비를 경험한다.

<p>8월 21일 아이들 개학 지나간 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즐거운 개학식이 8월 21일입니다. 이날을 잊는 부모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고 8월에 만나요!!</p>	<p>12월6일 교육간담회 벌써부터 2학기 교육간담회 주제가 기대됩니다. 간담회주제는 우리가 함께 정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의견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일꾼에게 이야기 해주길 바라요.</p>
<p>9월 28일 수지꿈 가을잔치 올해는 매년 열리던 운동회를 가을로 옮겨 가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수지꿈 가을잔치에 많은 가족이 참여하여 더욱더 풍성한 가을잔치를 만들어 보아요.</p>	<p>12월 20일 겨울방학 2월 19일 개학식 2월 21일 졸업식</p>
<p>9월 30일 초등견기여행, 중등 들살이 아이들이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 우리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합시다. 자유시간을 누릴 준비를...</p>	<p>2월 22일 정기총회 한해를 돌아보고 일년을 시작하는 정기총회. 꼭 참여해서 학교의 많은 의견을 내 보아요.</p>
<p>10월 26일 입학설명회 1년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입학설명회 일정 - 원서접수 _ 10/28 - 11/1, 신편입체험 _ 11/11-11/15</p>	<p>항상 많은 관심과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운영비, 건축기금, 장학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안내 _ 국민 649701-01-180370 (꿈어린이교육공동체)</p>

편지를 마치고...

지금까지 이런 소식지는 없었다.
 평생 소장각... *만발*

꿈학교 소식지에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은 마치 소심한 심정으로
 러브레터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식지 제작에 영혼을 불태운 소머즈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다. *고길동*

편 : 편안하게 홍보지 만들자더니
 집 : 집요하게 일시키고
 후 : 후달리게 작업한 끝에
 기 : 기절해 버린, 소머즈. *노긋*

올 : 올해들어 소머즈가 잘
 챙 : 챙겨주더니
 이 : 이거시킬라고 그랬구만,누끼따!!
 소식지 작업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 되었어요. 중등 선생님들
 얼굴도 뵈고 이야기 나누었던
 시간들은 참 의미있었답니다. *물챙이*

홍보어벤져스 대다나다!!!
 앞으로 더욱더 열정 불태우겠어요!!
 띄어쓰기 공부 더 해야 겠다. *호령*

소식지...누구를 위한 소식지 일까?
 이것을 원하는 이들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안 해
 도 된다고 이야기해주길 바랬지만 아무도.. 아
 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게 맞나 봅니다. 그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10년만의 작업에 처음엔 좀 설레었습니다.
 '하면되지' 라는 생각은 컴퓨터 전원을 누른
 순간부터 후회 했습니다. 나의 기억력에 좌
 절하고 무뎠진 감각에 좌절했습니다. 그래
 도 끝은 났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이 남지
 만.. 그래도 많지 않은 시간 내에 끝냄을 스
 스로 칭찬합니다.
 10년만에 무언가에 달려들어 집중해 본 듯합
 니다. 예전엔 마감이 끝나면 나 스스로에게
 선물이라며 혼자 여행도 가고 많은 것을 했었
 는데 이번 소소한 마감 끝엔 만나 방학이 기
 다리고 있네요. 안나와 함께 마감 풍파티를
 해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홍보어벤져스 그
 리고 일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방학 전에 2학기호를 만들 계획인데 관
 심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
 니다. 하다 보니 학교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아 가 재미도 있네요. 홍보소위의 문은 언
 제나 열려있습니다. 활~~짝~!! *소머즈*



수지꿈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22

031 264 4552

<http://수지꿈학교.kr>